

포스트모더니즘과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에 관한 고찰¹⁾

동서울대학 패션디자인과 조교수 강 죽 형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2장 포스트모더니즘 패션경향
제3장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
제4장 코스모폴리타니즘 작품제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요 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디자인 경향을 예술사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20세기 예술 사조를 대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패션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전반적인 경향과 패션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패션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을 네 가지 경향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문화권 내부의 권력구조를 파괴하여 성별, 계층별, 세대별, 인종간 조화를 추구하는 패션경향이다. 둘째, 문화권 간의 경계의 파괴하여 이 문화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패션경향이다. 셋째, 과거와 현재를 조화하는 패션경향이다. 넷째, 자연과 과학을 조화하는 패션경향이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문화간 조화가 보다 활발해지면 코스모폴리탄 패션경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현대 패션경향의 다원성을 대표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구 중심의 에스닉이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서구 복식에 에스닉이 가미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오프꾸뛰르의 대표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디오르와 지방시의 작품을 분석하여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 동양의 에스닉과 서구의 패션이 혼합된 작품 그리고 동양 및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I. 서 론

현대의 패션은 개성화, 다양화되어지면서 퓨전 스타일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퓨전 스타일의 근간에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성의 근원

1) 본 논문은 동서울대학 2002년도 교비 연구 지원에 의한 연구임.

을 찾기 위해서는 현대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예술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관점에서 패션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형성과 패션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하는 틀(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함께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글로벌 시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중에서도 특히 이문화간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문화적 요소가 융합되어지는 패션경향으로 에스닉(ethnic) 풍의 대두를 설명하고 이러한 에스닉 풍이 일차원적인 이국적인(exotic) 차원에서 세계중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으로 발전되어지는 경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양 복식에 나타나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요소와 20세기 이후 서구 복식에 에스닉이 가미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코스모폴리타니즘 경향이 현대패션의 본원적인 디자인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패션경향을 대별하는 오프꾸뛰르에서 발표되는 대표작품 중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반영된 작품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에스닉 모티브가 결합되어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 경향을 형성하는 경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포스트모더니즘 패션경향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20세기 이후 현대사회의 시작으로 낭만주의가 쇠퇴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적 사조가 성행했고, 패션도 모더니즘적 경향을 반영하여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고 하에서 패션은 베블렌(Veblen)이나 심멜(Simmel)이 고전적으로 정의하듯이, “계급차별화를 위한 도구”로 인식 되어진다. 예컨대, 가진 자는 신분상의 유일무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단순히 가진 자를 모방하려는 심리에 의해서 패션이 전파되어 진다는 것이다. 모더니즘 패션은 이러한 고전적 정의에 근거해서 디자이너를 부각시키는 오프꾸뛰르를 중심으로 발전한 패션조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대중문화가 확산²⁾되면서 대중소비시대가 시작되고, 패션에 있어서도 개인의 아이디어, 욕망, 그리고 신념이 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취향의 차별성이 강조되어졌다. 이렇듯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중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생산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패션에 있어서도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오프꾸뛰르가 퇴조하고 프레타·포르테가 부각되어졌다.

원래 포스트모더니즘은 영국의 건축평론가 젠스크(Jencks)가 70년대 후반에 탈근대주의를 표방한 이래 디자인, 음악, 미술 나아가 패션에까지 영향을 미친 20세기 후반의 주요 예술경향이다. 즉, 건축용어로 기능, 효율,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근대 건축의 무의미함을 배격하고, 시각에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을 부각한 조류이다.

패션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경제력을 과시하는 패션(fashion for standard symbol)이 아니라 입는 사람 자신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패션,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상식화 되어 있던

2) 제인 글로버(Jane Grove)는 20세기 패션변화의 원동력으로 산업혁명, 여성혁명, 사회적 혁명, 청소년 혁명을 제시하고 있다.

스타일의 근본을 바꾸는 패션정신을 의미한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형태는 물론 색상까지 대담하게 유희감각을 집어넣는 특성을 지니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자유롭게 혼합하여 합리성 일변도의 모더니즘 시대와는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90년대 후반의 패션체계는 홀리칸 모더니즘적인 현대패션과는 그 추구하는 정신이 다르다. 이는 하향 전달되는 권력에 근거한 패션에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계층을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패션양식이다. 김민자(1998)는 형식주의에 집착한 모더니즘적인 닫힌 패션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적 패션을 열린 패션(open fashion)³⁾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사상체계는 이성(모더니즘)과 감성(낭만주의)이라는 양극화의 대립양상에서 융합, 해체, 그리고 초월이라는 영원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2.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특징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미학이다. 이는 문화권 내부의 기존 권력체계를 파괴하고, 문화권 간의 경계를 파괴하여 탈 중심화로 나아가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경향을 지니면서, 이성일변도인 현대과학에 대해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패션경향을 <표 1>과 같이 네 가지 분석틀/framework)로 살펴보았다.

<표 1> 포스트모더니즘 패션경향 분석 틀

다원화 방향	조 화	대표적인 패션경향
문화권 내부의 다원화	성별, 계층별, 세대별, 인종적 조화	Bike-look, Hippies-look, Punk-look, Casual-look, Sporty-look..
타문화권으로 다원화	이문화간의 조화	Cosmopolitanism
인공미와 자연미의 다원화	과학과 자연의 조화	Ecology, Futurism
역사적 다원화	과거와 현재의 조화	Retro-influence

1) 문화권 내부의 다원화

이는 성별, 계층별, 세대별, 인종적 조화를 추구하는 패션경향이다. 예컨대, 기존 질서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인위주에서 청소년이 부각되는 패션경향, 남성위주에서 여성이 부각되는 패션경향, 가진 자 중심에서 못가진자가 부각되는 패션경향, 인종차별주의에서 흑인 문화가 주목받는 패션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20세기 초반에 확립된 모더니즘 중심의 패

3) 김민자(1998), “20세기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선경향으로부터의 극복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권력에의 의지'에 기초한 계급차별성이나 하향전파설을 뒤엎는 논리로 확고한 사회 엘리트주의를 탈피해 가는 과정이다.

2) 타문화권으로 다원화

이는 이 문화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대별된다. 즉,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보편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지는 패션 경향을 의미한다. 물론 타문화권의 패션이미지가 전파되는 에스닉 경향은 모더니즘 패션에서도 빈번히 나타났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에서는 모더니즘적 패션에서 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다양한 에스닉의 혼합으로 보다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예컨대, 양 방향적인 문화이식이 전개되어 서구는 서구대로 오리엔탈 풍의 에스닉에 영향을 받게 되고⁵⁾, 타지역은 타지역 대로 서구 중심의 코스모폴리탄 패션이 전파되어졌다.⁶⁾ 이에 따라 서양과 동양의 에스닉 풍이 유행 트렌드화 되어졌고, 이러한 에스닉 풍은 단순히 한 지역의 에스닉 풍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멀티 모티브(multi-motiv)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⁷⁾

3) 인공미와 자연미의 다원화

이는 과학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패션경향이다. 즉, 이성적 합리주의 하에서 지나치게 과학 중심이었던 조류에서 보다 자연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 패션경향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도모하는 패션경향으로 한편에서는 에콜로지(ecology)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부각되는 패션경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심화되어질 21세기에는 이러한 다원화는 더욱 심화되어질 것이다.

4) 역사적 다원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시대적인 특징은 다양한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창조하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성행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의 레트로(retro-influence)는 단순히 옛것을 모방하는데 거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인 감정과 정서, 그리고 시대에 어울리게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역사성을 경시하는 모더니즘에 반발해 역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회고나 재현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모든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절충하는 것으

4) 문화권 내부의 다원화는 모더니즘 패션경향에서 이미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 다원화가 더 심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더니즘 패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폴 푸아레(Paul Poiret)는 르네상스 이래 여성을 압박하던 코르셋을 파기하는 패션을 선보이고, 샤넬(Chanel)이 단순성, 비장식성, 기능성, 합리성을 최대화한 패션을 선보여 전문적인 패션디자이너로 부각되면서 20세기 초반의 주류 패션으로 자리잡 았다.

5) 서구 입장에서 이러한 타지역의 에스닉 풍은 이국적(exotic)한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아라비안 룩(Arabian Look), 아프리카 룩(African Look), 인디언 룩(Indian Look), 차이나이즈 룩(Chinese Look), 몽골리안 룩(Mongolian Look) 등의 패션테마로 이용되었다.

6)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에서 서양 이외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주체로서의 자국적 정체성이 갖는 패션디자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7) 멀티 모티브 경향은 획일성을 타파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와 일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에스닉 풍이 새로운 형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아방가르드적 차원에서 모색 되어지고 있다. 예컨대, 서구의 코스모폴리탄적 의상에 동양 내지는 서양의 에스닉이 복수의 디자인 모티브로 작용한 경우이다.

로 여기에는 장식성·낭만성·페미니즘(feminism), 클래식즘(classicism) 등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적 패션 경향은 중심화, 총체적, 국제적 보편성, 획일성의 성격은 열어지고, 보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패러디(parody)⁹⁾, 혼성모방(pastiche)¹⁰⁾, 브리콜라주(bricolage)¹¹⁾, 키치(kitsch)¹²⁾ 등이 빈번히 활용되어진다.

III.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

1.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의 등장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개념이 형성된 것은 멀리 헬레니즘(Hellenism)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동방정복으로 그 영역을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는 이탈리아까지 확대시켜 그리스문화의 세계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복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의 중심지가 그리스에서 동방으로 이동해 갔을 뿐 아니라 문화의 성격도 달라졌다. 고전적인 그리스문화는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범주 내에서 민족의 계약을 받아 협소성을 면치 못했으나, 헬레니즘문화는 폴리스와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바탕으로 한 보편주의의 차원을 지향하였다.¹³⁾

이상과 같이 단일의 국가, 지역 범주를 초월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개념이다. 한편 사회학의 영역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민족이나 국가에 뿌리를 둔 애국주의(patriotism)와 상충된다.¹⁴⁾ 특히 보편성에 근거한 세계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민족주의에 근거한 애국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제3세계 젊은 지식층에게는 양립하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국제적인 또는 전세계적인 이라는 형용사이면서 세계주의자, 세계인이라는 명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국가 특성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시야로 혼합하고 절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코스모폴리타니즘 개념을 패션에 적용하면 어떤 옷을 입고 세계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무난한 스타일로 나타난다. 예컨대, 패션이 국제화되어 “세계 공통의 같은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8) 추미경·김순자(1998), “현대복식에 표현된 신고전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호*

9) 기존의 사물을 자기비평적인 시각에서 모방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풍부한 창조능력, 풍자와 아이러니한 패러독스를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패러디적인 모방은 충격과 의외성을 던져준다

10) 특정한 혹은 독특한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패러디에 존재하는 숨어있는 동기나 풍자적 충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민속의상의 자연미를 그대로 재현하는 에스닉풍 패션이 좋은 예이다.

11) 하나의 작품에 다른 작품으로부터 인용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이다. 이는 복잡한 모티브 구조 하에서 인용된 이미지들이 재인용되고, 다시 다른 이미지와 재결합되어 다양한 이미지들이 한데 어울어지는 패러다임이다.

12) 서구 이외의 문화 혹은 대중문화의 저속한 취향이나 통속적인 소재, 값싼 소재로 만들어진 예술을 통칭한다. 이는 부조화, 부적절성, 무질서, 미완성적 성격을 지니는데, 청소년 하위문화, 팝아트패션 등에 나타나는 경향이다.

13) Peter Murphy(1997), "Cosmopolitanism and Neohellenism", *Journ of Modern Greek Studies* 15.2

14) Eric Brown(1997), "Stoic Cosmopolitanism and Political Life", *Ph. D. Dissertation in Uni. of Chicago*.

이처럼 매일같이 빈번한 문화교류 속에서 태어난 패션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게 되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세계 동질의 생활정보 속에서 성립한다. 또한 그러한 동질적인 미의식을 바탕으로 의상이 입혀진다. 세계 각국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패턴이나 기호가 획일화 되어지고, 이에 따라 세계 공통의 생활패턴이 생겨난다. 이러한 획일적 글로벌 소비패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대도시는 국별 특이성을 상실한 무국적 상태가 되어 런던, 파리, 뉴욕, 동경, 서울 등의 패션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획일적인 패션의 근간에는 다양한 문화가 숨겨져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상징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도 다양한 문화의 복잡한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패션에 있어서의 이러한 코스모폴리타니즘 경향을 고대복식과 르네상스 시대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20세기 이후에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고대복식과 르네상스 복식에 나타난 코스모폴리타니즘

1) 고대복식에서의 코스모폴리탄적 요소

고대복식에서 다양한 문화가 한꺼번에 나타난 것은 에트루니아 복식에서였다. 예컨대, 이집트, 소아시아 등 고대 오리엔트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크리트 등 여러나라의 복식을 혼합한 형태가 에트루니아 복식의 특징이다. 예컨대, 스커트와 짧고 좁은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는 크리트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의 영향으로 키톤과 히마티온식의 드레이퍼리형이 형성되었으며,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수직방향의 주름이나, 소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색상의 트리밍이 성행했다.

2) 르네상스 복식의 코스모폴리탄적 요소

르네상스 시대 찢어진 군복이 디자인 모티브인 슬래쉬나 우아한 선과 규칙적으로 배열된 주름이 특징인 러프는 코스모폴리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당시의 주된 의상이었던 로브(robe)에 응용된 슬래쉬와 러프는 국별로 모양이 조금씩 달랐으나, 당시 서유럽의 공통적인 의상이 슬래쉬와 러프를 사용한 로브였다. 따라서 당시의 귀족층에서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의상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당시에 남자의복에서 카프탄 양식이 도입되는 등 동양적인 에스닉풍 패션이 도입되기도 했다. 결국 바로크, 로코코,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서양 복식 내부에서는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코스모폴리탄적인 요소가 성립했다. 이러한 서양복식 중심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좁은 의미로 서구민속 중심주의 (western ethnocentrism)¹⁵⁾ 이라 할 수 있다.

3. 20세기 이후 서구복식에 에스닉 풍이 가미 되는 과정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체제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항상 다른 문화와 접촉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문화전파현상이 발생한다. 전파는 두 사회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만일 두 상이한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1차적인 혹은 직

15) Charles Ess(1988), "Cosmopolitan Ideal or Cybercentrism", *APA Newsletters Vol 97, Spring*

접적인 접촉관계에 있는 경우 활발한 문화교류가 나타나게 된다.¹⁶⁾

예컨대, 문화이식이란 이질문화에서 오는 새로운 생활습관에의 적응(Thunwald, 1966)인데,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이 가장 쉽게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복식이다.(OttMarti, 1976) 식민지화가 가장 강력한 복식 문화이식의 수단이 되면서 2차대전 이후 서구 중심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Moore, 1974)

그러나 문화이식은 양 방향으로 전개되어 서구는 서구대로 오리엔탈 풍의 에스닉에 영향을 받게 되고, 타 지역은 타지역 대로 서구 중심의 코스모폴리탄 패션이 전파되어졌다. 예컨대, 이러한 양 방향의 문화이식이 전개되면서 서양과 동양의 에스닉 풍이 유행 트렌드화되어졌고, 이러한 에스닉 풍은 단순히 한 지역의 에스닉 풍에서 보다 복잡한 형태의 멀티 모티브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획일성을 타파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와 일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에스닉 풍이 새로운 형태의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아방가르드적 차원에서 모색 되어지고 있다. 예컨대, 서구의 코스모폴리탄적 의상에 동양 내지는 서양의 에스닉이 복수의 디자인 모티브로 작용한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의상을 창작하는 디자이너 본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날의 디자이너들은 매스미디어,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교류,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의 발달로 다양한 경험을 단기간에 접하게 되어, 디자인에 필요한 모티브를 동시다발적으로 혼합하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자인 모티브가 다양화, 다중화 되어지고 있다.¹⁷⁾ 다음에서는 20세기 서구 중심의 코스모폴리탄에 가미되어지는 에스닉 풍의 흐름을 분석해 보았다.

1) 20세기 초기(1900년대~1930년대)의 에스닉풍 복식

세기말에서 20세기로의 이행으로서 예술에서는 모던 아트(modern-art)가 시작되었고 복식 문화에서도 모던 스타일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기 유럽은 러시아 발레 공연을 계기로 화려한 색채와 동양풍의 소재가 유럽 각지의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

오리엔탈 룩(oriental look)의 도입에 따른 에스닉(ethnic)은 폴 푸아레(Paul Poiret, 1910)가 동양풍의 도입을 시초로 현대 최초의 에스닉풍의 스타일을 발표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패션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호블(hobble) 스커트, 터번의 하렘(harem) 스타일, 키모노(kimono) 코트 등이 있다. 한편 에르메(Erte)는 1920년대 술 장식의 중국풍 의상을 소개했고, 1922년 이집트 투탕카멘 왕의 고분발견으로 널리 이집트풍의 모티브가 복식의 문양과 장식품에서 유행했다.

결국 20세기 초 아르데코 시기의 복식에선 이국적인 동양풍의 독특한 양식으로 폴 푸아레 같은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에스닉풍의 유행이 시도되었다.

16) 선정희·유태순(1998),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복식 41호

17) 김민자(1998)는 이렇듯 이미지로 전달하는 디자이너의 창작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열린 패션이라 표현하면서, 닫힌 패션의 차원에서 평론가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 20세기 중기(1940년대~1970년대)의 에스닉풍 복식

1940~50년대는 전쟁 등 정치적인 영향으로 전반적인 복식유행이 남성복처럼 기능적으로 변해 에스닉 복식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다.

1960년대 베이비 붐 세대의 젊은층 위주로 아프리카풍 에스닉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60년대 초기에는 미국 흑인 민권운동으로 꼬불꼬불한 머리형태인 아프리카 헤어스타일(Afro hair style)과 원색적인 아프리카 풍 의상들이 선보여졌다. 60년대 중반에는 기존의 가치에 반항하는 히피족의 등장으로 너털너털한 블루진, 술장식의 튜닉등 짚시풍의 복식이 유행했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는 경기침체로 로라 애슐리(Laura Ashley)의 전원풍 의상이 자연에의 복귀를 시도했고, 70년대 중반에는 지속적인 경제압박으로 옷들을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과 험령한 루스룩으로 중국, 인도, 일본 등 독특한 동양풍의 오리엔탈룩이 유행했다.

이상과 같이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다양한 에스닉 풍이 서구 중심의 코스모폴리탄에 소개되어 현대복식에 있어 양자가 융합되고 보편화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 20세기 후기 (1980년대~1990년대 후반)의 에스닉풍 복식

1980년대에는 세계유행이 각국의 복합된 문화의 표출과 새로운 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더욱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변모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이 복식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에스닉적인 민속풍이 서구 중심의 코스모폴리탄을 급격히 변모시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 경제력 강화와 중국의 문호개방으로 동양풍 의상이 보다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일본 풍으로는 겐조(Kenzo), 미야케(Miyaki)에 의해 비구조적인 빅룩과 다양한 형태의 레이어드 룩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독일 IGEDO모드 박람회에서 중국 실크쇼가 개최되기도 했다. 한편 동양적인 에스닉과 더불어 동구권의 개방화로 소수민족의 민속복이 에스닉 풍의 새 주제로 대두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가 아카데미 최고의상상을 받으면서, 아프리카 풍의 사파리 룩을 탄생시켰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잉카유적 전시회로 라틴 아메리카 풍의 전통적 수직물의 의상이 유행했다.

1990년대 이후 순수 자연이미지의 에콜로지가 주요 테마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민속적인 에스닉 풍의 자연회귀 현상으로 자연물의 프린트와 천연소재 및 파스텔 조의 색 배합, 여성스러움, 간결함의 패션 경향이 에콜로지 풍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1980년~90년 대에는 세계 유행 추세에 따라 다양한 에스닉 풍이 동시에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에스닉의 동시다발적 출현은 디자인 모티브를 다중화시켜 서구중심의 코스모폴리타니즘(western ethnocentrism)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코스모폴리타니즘(neo cosmopolitanism)으로 진행되고 있다.

4) 2000년대 이후의 에스닉 경향

서구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기초로 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의 이미지를 융합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부각되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적인 흐름”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대비를 보이는 아시아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소극적이고 단정한 일본의 건축양식이나 화려하고 정밀한 중국의 장식양식 등 절

제되고 엄격한 아름다움이 아시아적 흐름의 한 축이다. 둘째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역동성에 따라 나타나는 아시아 경제의 힘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각되는 아시아적인 신문화이다. 이러한 아시아적 미의식과 역동성은 분명히 패션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아시아 각국을 깊이 연구한 철학자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는 “금후 서구 사회는 틀림없이 아시아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표 2> 20세기 현대복식에 표현된 에스닉풍 복식¹⁸⁾

시 기		이벤트	유행경향	복식형태	디자이너
20세기 초반	1910년대	러시아 발레 공연	러시아풍, 터키풍, 이슬람풍	호블 스커트, 하렘 팬츠, 미나렛 튜닉, 터번착용	Poiret
	1920년대	동방에의 관심, 아르데코, 이집트 의 투탕카멘 고분 발견	중동풍, 일본풍, 중국풍, 이집트풍	기모노 스타일, 동양적 문양, 화려한 색채, 이집트 문양 및 장식풍	Erte
20세기 중반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히피문화, 복고풍 경기침체	아프리카풍, 히피, 짚시풍, 전원풍	Afro hair style, 원색, 노출심 한 의상, 낡은 블루진 꽃무늬 프린트	YSL L. Ashiey
	1970년대	중동 석유파동, 미·중 평풍외교, 일본경제력 강화	중동풍, 중국풍, 일본풍	Arabion Look, 만다린 코트, 차이나 칼라, 빌록, 루스 록, 레이어드 록	Miiyake YSL Kenzo
20세기 후반	1980년대	일본패션 성장 동구권 자유화, 중국문화개방, 이디오피아 난, 잉카유적 전시회	일본풍, 동구권풍, 중국풍, 아프리카풍, 아메리카풍, 남태평양풍	발전된 기모노 형태, 다양한 레이어드, 칙칙한 색, 모피장 식 코트, 민속복식 응용, 사치 스런 원단, 금박장식, 사파리 룩, 랩 치마, 표범문, 술장식, 수직물의 사용, 열대꽃, 과일 문, 염료색상	Y.Yamamoto K.Rei, Ferre Valentino K.lagerfeld L.Scherrer R.Lauren Byblos
	1990년대	생태학적 관심, 환경적 문제접근, 자연회귀현상	에콜로지풍, 뉴 히피풍	자연물 프린트, 천연섬유, 파 스텔 색조, 자연스런 레이어드, 나팔바지, 긴 베스트, 통굽신발과 여성적 실루엣	R.Gigli G.Armani G.Versace D.Gabbana

18) 이정아·황선진·유송옥(1996), “20세기 여성복식에 표현된 Ethnic Fashion 연구”, 복식 37호

IV.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 디자인

1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오프꾸뛰르에서는 창조적인 디자이너들이 의상의 예술성과 이를 실현하는 고도의 테크닉으로 창작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컬렉션을 발표하고 이를 개성적인 맞춤 방식에 기초하여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오프꾸뛰르는 초기 귀족문화가 유산계급화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과거의 형식에 치우친 의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의상의 민주화를 표방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산업사회의 진전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이 부각되면서 프레마·포르페에 중심축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디자인 측면에서 오프꾸뛰르는 세계패션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실험대이다.¹⁹⁾ 특히 아방가르드적인 디자인 발표는 오프꾸뛰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멀티 에스닉(multi-ethnic)적 의상도 대표적인 오프꾸뛰르에서 탐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대중 패션에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 경향이 크게 부각되는 현상은 1990년대 말에 발표된 오프꾸뛰르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오프꾸뛰르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한 공미선(1998)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소재, 형태, 복식실루엣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²⁰⁾ 본 연구는 패션사진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실물 작품을 분석할 수 없어 소재를 중심으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형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를 선정했고, 실루엣을 강조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지방시(Givenchy)를 선정하여 이들이 발표한 의상을 중심으로 멀티 에스닉의 아방가르드적 실험을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두 디자이너의 작품 이외에도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 경향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차원에서 동양과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의 패션의 결합된 양상을 제시하고자 두 사람의 제한된 작품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1>에서는 이들 디자이너의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 디자인을 선별한 것이다. 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디자인이다. 예컨대, <사진1>은 프랑스 루이 14세의 망토와 가발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바로크 시대의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기풍을 자아내는 의상인데, 이는 스페인 투우사의 복장과 유사하다. <사진2>는 이집트 시대 주로 왕족의 남자들이 둘러 입었던 파뉴(pagne)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스커트 아래에는 비잔틴 제국 시대 남자들이 짧은 튜닉 밑에 입었던 호사(hosa)를 착용하고 있다. 팔에는 아프리카 토인이나 원시 부족들의 고유 문양을 바디페인팅으로 그려 놓았다.

둘째, 동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디자인이다. <사진3>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양이 프린트된 점퍼 스타일의 상의와 중국의 전통의상인 치파오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4>는 중국의 치파오 아래에 이집트의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응용한 의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5>는 태국의 전통의상을 응용한 스커트와 차이나 칼라가 달린 자켓, 아메리카 인디언의

19)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하우스 감독 Pacgues Rouet은 “오프꾸뛰르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끌어 올리는 원동력으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언급하면서 오프꾸뛰르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20) 공미선(1998), “파리와 로마의 오프꾸뛰르 디자인의 특성”, 복식 39호

머리 스타일이 어우러진 스타일이 혼합되어 보여 진다.

셋째, 서양의 에스닉과 동양의 에스닉, 그리고 서구적 패션이 다양하게 혼합된 디자인이다. <사진6>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깃털 장식, 케이프칼라와 중국풍의 용문양이 프린트된 지방시의 코트이다. <사진7>은 일본의 기모노 칼라와 소매를 응용한 의상으로 오비부분은 로코코 시대의 코르셋을 응용 하였으며, 게이샤 화장을 하고 있다. <사진8>은 일본의 머리 장식과 아프리카의 목걸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권간 교류가 확대되고 각국의 이질적인 문화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결합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가장 잘 구현 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패션디자인	출 처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	 사진1 사진2	<사진1>Christian Dior (1998년 Vogue) <사진2>John Galliano (COLLEZIONI A/W No 58)
동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3>Christian Dior (1998년 Vogue) <사진4>Christian Dior (COLLEZIONI A/W No 58) <사진5>Christian Dior (COLLEZIONI A/W No 60)
동양 및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	 사진6 사진7 사진8	<사진6>Givenchy (COLLEZIONI A/W No 60) <사진7>Givenchy (COLLEZIONI A/W No 60) <사진8>Givenchy (COLLEZIONI A/W No 60)

<그림 1>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디자인

이상과 같은 작품 분석을 통한 디자인 경향 도출은 료타드(Lyotard)가 언급했듯이 현재의 불확정한 상황에서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조류를 실험하는 아방가르드(avant-garde)²¹⁾적인 몇몇 작품들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코스모폴리타니즘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별해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패션의 많은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에스닉적 요소들이 디자이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신 세계에서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져 새로운 코스모폴리탄적인 성향(neo-cosmopolitanism)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포스트모더니즘 패션경향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경향을 다원화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문화권 내부의 다원화, 타문화권으로 다원화, 인공미와 자연미의 다원화, 역사적 다원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화 중에서 타문화권으로 다원화되어지는 경향이 극대화된 현상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을 제시하였다. 즉, 서구 중심의 에스닉이 포스트모더니즘 조류에서 보다 큰 세계차원의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인 시각에서 서양 복식에 나타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요소를 고대복식과 르네상스 시대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문화 교류를 통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확장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세기 이후 서구 복식에 에스닉이 가미되는 과정을 20세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적인 패션경향을 대별하는 오프꾸뛰르의 대표 디자이너인 크리스찬 디오르와 지방시의 작품에 나타난 코스모폴리타니즘 경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작품분석을 바탕으로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 동양의 에스닉과 서구의 패션이 혼합된 작품 및 동양 및 서양의 에스닉과 서구적 패션이 혼합된 작품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은 현대패션의 근간이 되고 있고, 이는 21세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새로운 패션 경향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컨대, 다양한 디자인 모티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멀티 에스닉으로의 진전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세계문화 교류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신조류로 부상하고 있다.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 따라서 모방할 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창조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 분석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패션의 디자인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작품분석으

21) 프랑스의 군사용어인 전위(vanguard)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소속부대를 엄호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방에서 활동하는 병동대를 의미한다. 예술용어로는 기존의 가치체제나 전통일반을 부정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 및 새로운 조형질서를 모색하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그리고 다소 극단적인 예술행위를 의미한다.

로 코스모폴리타니즘 패션경향을 제시하고 있어 탐색적인 수준에서 논리를 전개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보다 객관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멀티 모티브를 분석을 위해서는 이어지는 연구에서 보다 광범위한 작품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접수: 2005년 9월 20일)

참 고 문 헌

- 장희경(1998), "한국적 의상디자인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공미선(1998), "파리와 로마의 오뜨꾸뛰르 디자인의 특성", 복식 39호
권순형(1975), "공예개관", 한국예술지 10권
금기숙(1992),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호
김민자(1998), "20세기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I", 복식 37호
김민자(1998), "20세기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II", 복식 38호
김정은·정홍숙(2000), "제2차 대전후 조형예술과 Christian Dior의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호
선정희·유태순(1998),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복식 41호
이경아 & 전해정(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호
이경아·황선진·유송옥(1996), "20세기 여성복식에 표현된 Ethnic Fashion 연구", 복식 37호
이정후·안선경·양숙희(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적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33호
이효진(2000),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3호
임영자(199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호
정홍숙(1999), 서양복식사, 교문사
추미경·김순자(1998), "현대복식에 표현된 신고전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호
Collection Haute-Couture, No 58(A/W)
Collection Haute-Couture, No 60(A/W)
Fashion Forum(1997), 삼성패션 연구소 Vol.46-47
Vogue(1998), No 28
Charles Ess(1988), "Cosmopolitan Ideal or Cybercentrism", APA Newsletters Vol 97
Eric Brown(1997), "Stoic Cosmopolitanism and Political Life", Ph. D. Dissertation in Uni. of Chicago.
Peter Murphy(1997), "Cosmopolitanism and Neohellenism", Journ of Modern Greek Studies 15.2

Fashion Trend in Post-Modernism and Cosmopolitanism

Juk-Hyung Kang²²⁾

This study approached the tendency of the fashion design art-historically. Especially it analyzed the tendency of fashion at a view point of the post-modernism which representatives the artistic trends of 20th century. The study suggested the framework that analyzes the post-modernism in fashion. Post-modernism in fashion can be divided four trends. First one is the fashion trend for harmony of sex, social class, generation, human race in the same culture. Second trend is the multi ethnic that matches the diverse cultures. Third one is retro trend that harmonizes past and present. Fourth is the fashion trend that harmonizes ecology and technology.

The second trend, multi ethnic, can be developed to more sophisticate phenomenon. It is the cosmopolitanism trend. In this sense, cosmopolitanism represents the pluralism of the resent fashion trend. To show fashion trend of cosmopolitanism, representative designer's works were analyzed. The works by Christian Dior and Givenchy were classified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combination of western ethnic and western fashion. The second is combination of oriental ethnic and western fashion. The third is western, oriental ethnic and western fashion.

Key words : Fashion Trend, Cosmopolitanism, Post-Modernism, Ethnic, Multi-Motif

22)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ul College